

## 7. 홈네트워크/정보가전

## 시범사업 확대를 통한 기술 사업화/산업 활성화

개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국내 홈네트워크 기술/제품을 통한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 필요</li> <li>- 홈네트워크/정보가전은 건설, 가전/가구, IT 등 다양한 분야가 융합되는 소비자 주도형 기술 분야로,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(B2B → B2C) 요구사항의 적극 반영 필요</li> <li>- 현재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확대(국내 참여지역(지자체) 확대 및 해외 공동 시범사업)를 통한 산업활성화 추진 필요</li> <li>* 시범사업을 통한 소비자 Needs의 R&amp;D 반영</li> </ul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<p>핵심 기술개발(R&amp;D) → 시범사업 적용 → 소비자 수요 파악        ↖ Killer Application 발굴 ↗</p> </div>
동향	<p>국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(구)정통부에서 홈네트워크 시범사업('04~'05, 53.6억원) 추진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건설사, 서비스 사업자, 시스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발굴로 인하여 고객층 어필 및 서비스 상용화 부진</li> <li>* 약 40여개의 홈네트워크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5개 대도시권 1,300개 시범가구에 시범서비스 제공</li> <li>- 신축주택 중심으로 추진되어 '규모의 성장' 달성 미흡</li> <li>* 전체 주택의 98%를 차지하는 기축가구에 대한 파급 효과가 미흡</li> </ul> </li> <li>○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기반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시범사업('09~'12, 60억원) 추진중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유형별로 서비스를 분류(홈케어/고품질/그린홈)하고, 지자체와 연계하여 기축주택 중심으로 추진 예정</li> <li>* 공모 및 수요제안 세부 현황은 [붙임] 자료 참조</li> <li>- 기술개발, 법·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 등과 연계하여 추진</li> <li>* 컨소시엄들을 대상으로 2년 후 실행될 설치기준을 사전에 적용하여 검증함으로써, 기술기준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</li> </ul> </li> </ul>

동 향	해 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각국의 시장 상황 및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장애인, 노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자동화 서비스, 미래형 지능형홈 서비스 및 그린홈 서비스 등 다양</li> <li>* 미국(Aware House, Georgia Tech.), 영국(INTEGER), 독일(inHaus, 프라운 호퍼), 일본(Dream House PAPI, Toyota) 등 학계와 기업체 중심으로 추진</li> <li>* 영국의 시범주택: 기존주택 대비 50%의 에너지 절감 및 30%의 물절약 효과</li> </ul> </li> <li>○ 단독 주택 위주의 서비스 및 구축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한국형 홈네트워크 모델(대부분 공동주택용)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</li> </ul>
시사점 및 정책 반영사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범사업은 단순히 서비스 발굴만이 아니라, <b>기술개발의 결과물이 산업 활성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</b>을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특히, 해외 시범사업과 연계되어 추진할 경우,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체의 해외 시장 진출의 유리한 기회 제공</li> <li>* 한국-캐나다 정부간 시범사업(Pilot Project)을 통한 한국 DMB, WiBro 기술의 캐나다 진출 발판 마련(2006.1.)</li> </ul> </li> <li>○ AHNC(아시아홈네트워크산업협의회) 등 기존 해외공동 협력체를 활용하여 각국의 <b>시범사업 추진을 유도</b>하고, <b>국내 시범사업과 연계 추진 필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제/국내 표준 및 국내 정책에 반영하여 시장 우위 확보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
\* 붙임3 :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공모 및 수요제안 세부 현황

## 홈네트워크 시범사업 공모 및 수요제안 세부 현황

### 1. 과제 공모 개요

#### □ 사업 기간 및 개요

- 총 사업기간 : 2009. 3. 1. ~ 2013. 2. 28.(4년)
- 총 예산(정부출연금) : 60억원(매년 15억원)

구분		기간	출연금	목표
1 단계	1차년도	'09.7~10.2	15억원	기축주택에 보급을 위한 기반 구축
	2차년도	'10.3~11.2	15억원	기축주택 보급형 모델 확대 추진

#### □ 컨소시엄 구성

- 기반 인프라를 제공하는 인프라 컨소시엄과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컨소시엄으로 2개 유형의 컨소시엄으로 공모

#### □ 시범서비스 유형

- 지능형 홈네트워크 1단계 시범사업에서 부가서비스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시범서비스 유형은 아래와 같으며, 인프라 컨소시엄은 기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

#### < 1단계 주요 시범서비스 >

서비스유형	서비스코드	서비스
기본 서비스	기본	가스, 보일러, 조명 등 생활기기 제어(기본-1)
		세대 현관 기능, 출입통제 서비스(기본-2)
		가정내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홈뷰 서비스(기본-3)
		가전, 전등, 센서 제어에 의한 자동 방법 모드 서비스(기본-4)
홈케어 서비스	A	건강관리, 독거노인 모니터링, 재난안전관리, 실시간 비상안내 서비스 등 노인, 장애인, 저소득 계층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홈케어 서비스
고품질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	B	영화, 음악, 사진, TV 등 다양한 콘텐츠와 IPTV를 통한 부가 서비스를 가족이 공유하여 즐겁고 재미있는 생활을 기능하게 하는 서비스
그린홈 서비스	C	가정의 전력 소비량, 가전기기의 소비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가정의 유해가스, 미세먼지, 소음 등을 측정하여 효율적이고 깨끗한 가정을 가능하게 하는 그린홈 서비스

## 2. 컨소시엄 제안 현황

## □ 컨소시엄별 참여 기관 구성 및 적용 서비스

no.	컨소시엄명	구 성		사업비(백만원)					서비스내역		구 분
		주관 기관	참여기관 (기관수)	구분	출연금	매칭펀드		계	가구 수	기본서비스외 희망 부가서비스	
						지자체	민간				
1	경남TP 컨소시엄	경남 TP	경상남도, 서울통신기술, 가온S/W, KT경남(4) *진행하며 업체 추가 공모예정	1차년	900	840	60	1,800	305	-방문간호서비스 -재택건강 관리서비 스 -마을회관 지능형홈 서비스(헬스케어, 보안/응급, 업무서 비스, 방재/에너지)	인 프 라 + 부 가
				2차년	1,200	1,140	60	2,400	200		
				계	2,100	1,980	120	4,200	505		
2	아시아나 컨소시엄	아시 아나 IDT	부천시, 프롬투정보, 씨엔디아이(3) *KDN 협력 추진 예정	1차년	358	10	348	716	60	-에너지 절감	
				2차년	477	50	427	954	60		
				계	835	60	775	1,670	120		
3	양산시 지능홈 컨소시엄	양산 시청	코콤, 아이리얼, 선우정보기술, 비아이넷(4)	1차년	699	700	426	1,825	149	-재난방지/출동 -원격의료상담 -독거고령자 긴급 서비스 -3D 디스플레이 실감 서비스 -대기전력 차단/가정 환경 제어	
				2차년	912	700	426	2,038	270		
				계	1,611	1,400	852	3,863	419		
4	광주TP 컨소시엄	광주 TP	광주시, 오픈테크놀러지, 위드솔루션, 골드텔, 매크로소프트, 모메드(6)	1차년	600	115	485	1,200	16	-고품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(IPTV, 디지털 Wall, 실감서비스) -가정 환경 제어 서비스	
				2차년	600	115	485	1,200	16		
				계	1,200	230	970	2,400	32		
5	코오롱아이넷(주)	-	-	1차년	100	-	119	219	-	-전기화재 예방 및 에너지 절감 서비스	부 가
				2차년	130	-	166	295	-		
				계	230	-	285	515	-		
6	우암코퍼레이션	-	-	1차년	100	-	101	201	-	-AMI 기반 전력소비/ 탄소배출 모니터링 시스템	
				2차년	100	-	101	201	-		
				계	200	-	202	402	-		
7	옵니패스	-	-	1차년	110	-	115	225	-	-소비자 인지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	
				2차년	110	-	115	225	-		
				계	220	-	230	450	-		
총 계				1차년	2,853	1,655	1,659	6,167	530		
				2차년	3,520	1,955	1,830	7,305	546		
				계	6,373	3,610	3,489	13,472	1,076		

## □ 종합 요약

- 인프라 컨소시엄(4개 컨소시엄) 및 부가서비스 컨소시엄(7개 컨소시엄)에서 총 134억원(출연금 64억원, 지자체 36억원, 업체 35억원) 규모로 제안
  - ※ 인프라 컨소시엄 4곳은 모두 부가 서비스도 같이 제안하였으며 4개 지자체(경산남도, 광주광역시, 양산시, 부천시)와 공동 제안
- 인프라 컨소시엄에서는 1천여 가구(1차년도 530가구, 2차년도 546가구)를 대상으로 제안
  - ※ 경남지역은 홈케어 서비스를, 광주지역은 고품질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, 부천지역은 그린홈 서비스를, 양산시는 세 가지 유형의 부가서비스를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제안
- 부가서비스 컨소시엄은 18여종의 세부 부가서비스 유형을 제안하였으며, 단독으로 부가서비스를 제안한 컨소시엄은 모두 그린홈 서비스를 제안
  - ※ 홈케어 서비스 : 원격진료, 보안/응급 서비스, 고령자 케어 서비스 등
  - ※ 고품질 홈엔터테인먼트 서비스 : IPTV 연동, 디지털 Wall, 3D 기반 실감 제어 서비스 등
  - ※ 그린홈 서비스 : 에너지 절감, 가정 환경 제어, 탄소배출 모니터링 서비스 등

## 3. 향후 일정

- '09.7.7.            컨소시엄 선정 평가위원회 평가
  - ※ 홈네트워크/정보가전 PD(KEIT) 평가위원으로 참여
- '09.7.14~24.    주관연구기관(ETRI, 지능형 홈네트워크 산업기반조성)과 시범사업 추진 계획 협의
  - ※ 우리원에서 수행하는 마일스톤 점검과 병행하여 협의에 참여 (지경부 정책 반영)
- '09.7.30.        시범사업 1차 워크숍 개최